

열정이 지식을 대신할 수 있다면

비비안느 포레스테의 《경제적 공포》를 읽고

복거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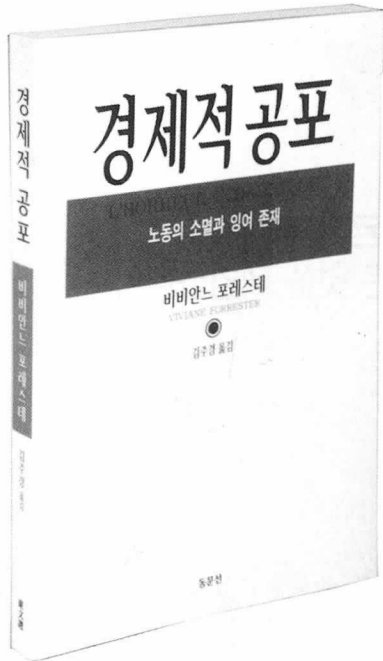
소설가

우리 시대는 '전문가들의 시대'다. 늘어난 고등교육과 깊어진 전문화 덕분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었고, 흔히 무슨 증명서로 그 사실을 떠받칠 수 있다. 그리고 텔레비전 토크쇼들이 날마다 보여주는 것처럼, 보통사람은 있는 줄도 모르는 후미진 분야에도 어엿한 전문가들이 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격과 의견을 높이 여기게 되었고, 자기 분야에서 갖춘 지식과 판단으로 자기 분야 밖의 일에 대해서도 전문가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직접민주제의 특질을 점점 질게 띠어가는 우리 정치 체제는 시민들이 모든 사회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점점 대담하게 내놓도록 격려한다.

전공 밖의 상투적 지식

불행하게도 자신의 전공 분야 밖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흔치 않다. 이 사실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다른 분야에 대해 쓴 책에서 아주 잘 드러난다. 그런 책이 거의 언제나 보여주는 것은 전공 분야를 벗어난 사람은 바탕이 단단한



지식 대신 상투적 지식들(cliches)을 얻기 쉽고, 흔히 오래 전에 버려진 학설을 재발견한다는 사실이다.

《경제적 공포》(김주경 옮김)는 소설가이자 문학비평가인 비비안느 포레스테가 실업에 대해서 쓴 책이다. 그래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분야 밖의 주제에 대해 쓴 책의 범주에 들어간다.

지금 유럽사회를 위협하는 실업은 일차적으로 경제문제다. 저자는 경제문제를 쓰기 전에 경제학 교과서를 한권이라도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 경제에 관한 저작 대신 《보봐리 부인》을 여러번 인용할 만큼 그녀의 지식은 모두 낡았고 상투적이다.

프랑스 소설가이자 문학비평가인 저자 비비안느 포레스테.



대중매체의 경제 기사와 경제에 관한 대중화 저작(popularizer) 몇 권을 읽으면, 경제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얘기할 자격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느 사회에나 드물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르크스주의 서적 몇 권을 읽고 우리 경제 체제에 대해 열정에 찬 비판을 퍼붓는 것이 젊은 세대의 본분이자 특권으로 여겨진 적이 있었다.

모든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소비이므로, 누구나, 직업을 갖기에는 어린 사람들이나 실업자까지도, 끊임없이 경제적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간다. 자연히 사람들은 경제에 관해서 다른 분야에 관해서보다 훨씬 많이 안다. 그러나 그런 '약간의 지식'이 위험하기로는 경제분야를 따를 것이 없으니, 경제학은 우리가 일상적 경험에서 얻는 직관들이 흔히 틀리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자연과학과 달리, 경제학은 아직까지는 깔끔하게 정리된 지식체계가 못되어서, 배우는 재미는 작으면서도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은 얻기 어렵다. 실제로, 통념과는 달리 사람들은 경제학보다는 물리학이나 생물학에 대해서 훨씬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안다.

지금 유럽사회를 위협하는 실업은 일차적으로 경제문제다. 그러나 포레스테는 그런 경제문제에 대한 책을 쓰기 전에 경제학 교과서를 한 권이라도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은 듯하다.

실은 그녀는 경제학자나 경제에 관한 대

중화 저작도 거의 인용하지 않았다. 대신 《보봐리 부인》을 여러번 인용했다. 자연히 그녀가 모은 경제학 지식은, 그것을 경제학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거의 모두 낡았고 상투적이다.

놀랍지 않게도, 그녀는 세상을 음모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녀가 거세게 비난하는 것처럼, 가진 자들이나 다국적 기업이 나쁜 음모나 결탁에 몰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다.

경제의 움직임은 제대로 살펴보면, 다른 모든 것에서와 마찬가지로, 음모론의 차원보다는 훨씬 깊은 차원의 관찰과 이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녀의 주장은 대부분 오류거나 반쪽짜리 진실이거나 설익은 통찰이다.

눈에 뜨이는 대로, 고른 다음 구절은 전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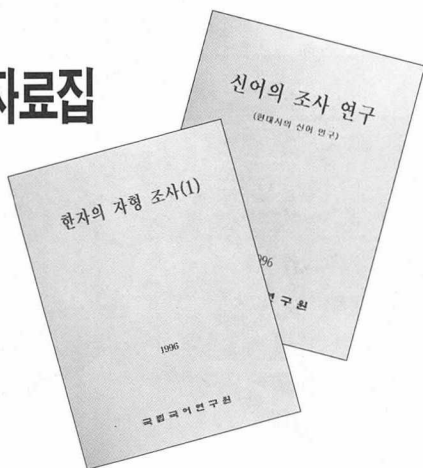
“이 경제는 또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사고 팔리는 암거래이기도 하다. 실질 자산이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이 실질 자산에 기초를 둔 상징들이 교환되는 것도 아니다. 대신 이 거래에서는, 예를 들면 중장기 기간의 계약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사고 팔린다. 그 계약이라는 것들은 아직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혹은 상상에 불과한 계약일 뿐이다. (...) 그런가 하면 대개 합의 하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가상의 가치에 대한, 즉 허상의 것에 대한 허구의

자료

국립국어연구원의 두 자료집

국립국어연구원(원장 송민)에서 펴낸 연구자료 두 권이 나왔다. 《한자의 자형조사 1》은 한·중·일 한자 표준화를 위해 우리나라 문헌에 사용된 한자의 이체자(異體字)를 조사, 고유한 자형을 파악한 기초 자료집. 고려말부터 조선말까지 간행된 금석문과 자전, 어휘집 시문집 가운데 대표적인 문헌을 대상으로 각 문헌에 나타난 이체자를 분석 정리했다.

《신어의 조사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수없이 많이 생겨나는 신어들을 조사 정리했다. 특히 현대시 가운데 나타난 신어를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1908년부터 1994년까지 현대시 10,886편을 대상으로



사전에 오르지 않은 말 1166항목을 조사했다. 문학작품 속에서 걸러진 우리말이 압축과 상징 속에서 어떻게 색다르게 쓰였는지 볼 수 있는 예들이 많다. 연구원은 해마다 문학 각 장르마다 나타난 신어들을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770-4814)

국립국어연구원/B5/각400면 내외/비매품

우리들 반쪽 삶의 내밀한 모습

《북한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읽고

공선옥 · 소설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무지와 오류에서 나온 생각들

파생금융(derivatives)을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 이 구절은 저자의 경제관이 얼마나 원시적인가 보여준다. 모든 경제행위들은, 여러 길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는 점에서 도박의 특질을 지닌다. 실은 사람의 모든 행위들이, 경제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결혼이나 범죄와 같은 행위까지도 그렇다. 실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행위가 그렇다.

따라서 삶의 본질적 특질 가운데 하나는 위험의 평가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금융의 본질적 기능이다. 모든 금융제도는 본질적으로 계산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위험을 합리적으로 다루어 경제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장치다. 그리고 파생금융은 새로운 환경에서 나온 새로운 위험을 다루는 수단으로 나왔고, 그것이 충족시킨 커다란 필요 덕분에 놀랄 만큼 빠르게 성장했다.

포레스테는 그런 무지와 오류에서 나온 생각을 독자들에게 잇달아 거칠게 쏟아놓는다. 그런 생각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모습에 대한 강렬한 두려움과 증오로 물들여져서 때로는 열정의 면모를 띠기도 한다.

랭보의 시구에서 따온 '경제적 공포'라는 제목은 얼마나 상징적인가. 공포와 증오는 어떤 감정보다 강렬한 감정이 아닌가. 아, 세상은 얼마나 좋을까, 열정이 지식을 대신할 수 있다면.

책을 덮으면서, 나는 체스터튼의 통찰을 새삼 떠올렸다.

“좋은 소설은 우리에게 주인공에 대한 진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나쁜 소설은 작가에 대한 진실을 말해준다.”

어떤 책을 읽고 나서 그것의 주제에 대한 통찰이나 대책이, 옳든 그르든 단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드문 경험이다. 마음이 무겁게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칭찬했다는 사실로 해서 저자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책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

동문선/A5신/280면/7000원

책 제목 그대로 지금 북한여성들은, 한반도의 38선 이북에서 여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니, 그쪽 사람들은 지금 모두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이들과 노인들과 임산부들과, 그리고 더 많은 여자와 남자들은, 그쪽의 백성들 모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연 이태제 입은 수해로 우리의 반쪽 형제들이 지금 아사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가슴 저미는 소식을 접하고 있는 어제 오늘이다.

태어난 지 7개월째인 내 아이가 아파서 칭얼대는 소리를 들으며 북쪽 아이들의 칭얼거리기도 같이 듣는다. 젖이 나오지 않는 어미의 빈 젖을 빨며 서럽게 울어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이 녀크 살이라도 떼어주고 싶은 것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한가지일 어미의 소리 없는 통곡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북쪽 여성들은, 북쪽 어미들은, 그리고 어미가 될 여성들은 다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젊은 여성연구자들이 펴낸 《북한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읽으며 나는 내내 그 생각을 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언뜻 스치듯 옛 소비에트연방의 철로보수원 여성을 본 적이 있다. 북구의 중년여성들이 흔히 그러하듯 그 여성도 몸피가 컸고, 그 큰 몸피에 비닐 비옷을 입은 채로

- 북한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 시시콜콜한 문제들, 이를테면
- 어머니로서의 고민, 남편과의
- 관계, 고부간의 갈등까지
-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 이 책에서 우리의 반쪽,
- 그녀들 내밀한 삶의
-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순수하고 책임감 강한'
- 아름다운 일하는 여성들이다.



공선옥씨.

철로 보수를 하고 있었다. 그 여성이 고개를 들어 자신을 찍는 카메라맨을 향해 웃어보는 모습이 나에게 강렬한 인상을 풍겼다. 그것은 어떤 이미지였다. 아, 여성에게 저런 아름다움도 있구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여성의 아름다움을 재는 척도란 늘상 한가지 틀이기 십상이었다. 그것은 대체로 강하기보다는 여린 이미지였다. 그러나 빗속에서 이탈된 철로를 보수하고 있는 커다란 몸피의 북구여성의 모습을, 그 여성이 땀을 흘린 상기된 얼굴로 커다란 햄머를 철로 위아래 내리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런 이미지의 여성을 내세운 글을 한번 쓰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커다란 눈동자에 우아한 밍크코트, 그리고 털모자를 쓴 북구 여인의 모습에 눈이 익어온

나로서는 철로보수원 여성의 모습에서 '사회주의 사회 속에서의 아름다운 여성' 이미지를 보았던 것 같다.

《북한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에 나오는 여성들은 대체로 구 소련의 철로보수원 여성에게서 보았던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았다. <로동신문>에 발굴 소개되는 신발수리공 박분순 여성이라든가, 해안식료공장 지배인 최명신 여성, 도로관리원 옥실이 등 이 책에서 소개되는 많은 여성들은 그야말로 '뽀뽀 있고 순수하고 책임감 강한' 아름다운 일하는 여성들이었다.

그야말로 북한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시시콜콜한 문제들, 이를테면 어머니로서의 고민, 남편과의 관계, 고부간의 갈등 문제들까지, 신문과 소설과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들의 사례를 들어가며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이 책에서 우리들의 반쪽, 그녀들의 내밀한 삶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다.

우리가 여기 살고 있듯이 그들이, 그녀들이 거기 살고 있음을 새삼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살며 사랑하며, 번민하고 갈등하며, 그리고 꿈꾸며 말이다. 다시 그들을 생각한다. 책 표지에 나오는 북스러운 여성의 얼굴은 아직도 그렇게 북스러울까. 그랬으면 좋겠다. ❖

대동/A5신/264면/6800원

